

계 심신단련, 습터를 제공하여 정서 순화와 문화,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명의 숲 가꾸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질 높은 「그린」 창조를 위해 생활권주변 산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시설과 연계된 산림녹지체계의 형성을 위해 생태적인 안정된 숲 조성등 21세기를 향한 도시림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제·환경적으로 건전한 환경 숲 조성 정책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 도시림은 시민의 건강 및 휴양의 복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 계획되고 보존된 도시내외의 생태계는 개

끗한 공기와 물을 공급하여 주고, 사회적·휴양적 생태환경의 질을 높여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림의 면모를 바꾸고

- 기존의 도시림은 다양한 기능과 효용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토지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개발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거나 적절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도시림의 기능과 효용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면서 쾌적한 삶의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서의 도시임업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 모습 찾아가는 우리 산림

-1997년말 ha당 평균축적 53m³로 올라가 -

산림청에서는 1997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4만1천ha로 국토면적의 64.9%이고, 산에 있는 나무의 총 축적(부피)은 3억4천1백만m³로서, ha당 평균 축적은 전년('96)보다 3m³가 증가한 53m³라고 밝혔다.

-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전년도보다 6,632ha가 감소한 644만1천ha이며, 전체 임목축적은 전년

보다 1천7백만m³가 증가한 3억4천1백만m³라고 발표하였다.

- 산림면적 6,441천ha는 전국토의 64.9%를 차지하는 것이며, 소유별

로는 국가 소유인 국유림이 1,414천ha로 22%,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은 488천ha로 8%이며, 나머지 개인소유의 사유림은 4,539천ha로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 지난해 우리나라 산림은 여의도의 약 8배나 되는 6,632ha가 감소되었으며, 가장 큰 감소원인을 타용도 전환으로서 도로, 공장용지, 대지, 전답, 목장용지 등의 순으로 전용되어 대부분 생산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림의 타용도 전환은 최근들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산림 보전 의식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의 우거진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53m³로서 전년 50m³에 비하여 3m³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임목축적은 1천7백만m³가 증가한 3억4천1백만m³이며, 1년동안에 이만한 축적이 늘어나자면 매 시간당 평균 1,945m³의 부피생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우리나라 임목축적은 전란중인 1951년의 ha당 평균 4.8m³에 비교하면 천양지차의 변화를 보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림녹화를 성공

시킨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하며, 20-30년 내에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산림의 대부분이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시작된 1973년 이후에 심은 나무들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있지 않아, 올해에도 연간 목재 수요량 9,184천m³ 가운데 국산재 공급량은 그 17%인 1,532천m³에 불과하다고 했다.

□ 산림은 우리에게 귀중한 목재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대주고 휴식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고 가뭄과 홍수를 막아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는 등 산림이 주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앞으로 산림청은 친자연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경제림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부족한 목재 공급원을 확보하고, 이미 심어 놓은 산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명의 숲 가꾸기”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튼튼하고 질 좋은 나무를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온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바라고 있다.